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휴일 '대회전'

4-5일 지역구 순회하며 밀바닥 표심잡기 주력
 대면접촉 자제... 거리유세·눈인사로 지지 호소



4·15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첫 주말인 4일과 휴일(5일), 도내 3개 선거구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여야 후보의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졌다.

>>관련기사 2·3면

후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최대한 대면 접촉을 자제하면서 거리유세와 눈인사를 통한 표심잡기에 주력했다.

제주시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는 4일 한림오일시장에서 '제주경제 살리기' 장보기 유세 후 애월·하귀지역을 방문해 집중유세를 펼쳤다. 이어 5일엔 골목길 투어와 제주도간호사협회와 정책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는 주말과 휴일 오전 노형오거리와 마리나호텔 사거리에서 큰길 거리인사를 시작으로, 한림오일시장과 한경지역 일대를 돌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거리유세를 펼쳤다.

정의당 고병수 후보는 5일 제주시

신광사거리와 연동·노형·외도 일대에서 거리 유세를 통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고, 무소속 박희수 후보는 한림 민속오일시장 등을 찾아 지지를 당부했다.

제주시를 선거구 후보들도 유권자에게 얼굴을 알리기 위해 분주히 지역구를 누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4일 우도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데 이어 5일엔 구좌읍 세화오일시장을 찾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농작물 피해를 포함시키겠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는 세화 오일시장과 우도·구좌·조천지역을 찾아 '게릴라 유세'를 펼쳤고, 한나라당 차주홍 후보는 지난 4일 제주시 이도

2동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출정식을 개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 역시 세화산에 주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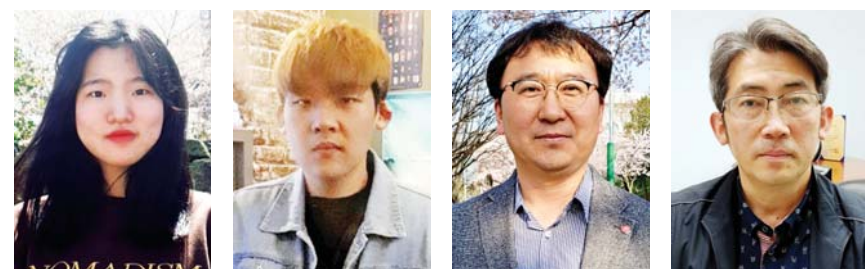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지난 4일 서귀포향토오일시장 등을 방문했고, 5일에는 서귀포시내 지역 상권을 돌아다니면서 주민·상인들과의 소통을 이어갔다.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는 4일 지역내 상가를 찾아 고추장만들기에 동참하고 서귀포 향토오일시장 등을 찾아 게릴라 유세를 진행했다. 이어 5일에는 안덕면·대정읍 지역을 차례로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

이밖에 군소 후보들도 유세차량을 이용해 지지를 호소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이런 국회의원을 원한다 ①교육



김민서 학생 신우준 학생 김남훈 사무처장 고성만 제주도지회장

"청소년 공약 안 보여... 지역청년 육성 지원을"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온다. 유권자의 표심은 어디로 향할까. 한라일보와 JIBS, 제민일보는 도내 각 분야에서 만난 유권자의 목소리를 담았다. 새로운 국회에 대한 바람이자 더 나은 제주를 위한 따듯한 조언이기도 하다. 도민이 바라는 국회의원, 첫 이야기는 교육 현장에서 시작한다.

▶"만 18세 첫 투표 기대... 청소년 빠진 공약 아쉬워"= 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총선부터 만 18세도 투표소로 향한다. 고등학생 김민서(신성고 2) 양도 그 중 한 명이다. 그는 "전부터 학생 참정권에 관심이 많았다"며 "친구들과도 학생 때 투표했으면 좋겠다고 얘길했는데, 교복을 입고 투표할 수 있어 기쁘다"고 했다.

첫 투표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청소년이 빠진 선거 공약에는 아쉬움을 느낀다. 민서 양은 "청소년을 위한 공약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청소년과 여성 인권, 환경 문제 등에 관심이 많은데 이에 대해 공약한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반짝 청년 공약 아닌 현실성 있는 대책을"= 대학생 신우준(제주대 언론홍보학과 2) 씨는 국회의원 선택 기준으로 '책임감'을 우선으로 꼽았다. 청년 표심을 겨냥한 '반짝 공약'이 아닌 실현 가능한 정책을 약속하고 실현했으면 하는 이유에서다.

그는 도내 청년이 짊어진 취업난의 무게를 거론하며 바람을 꺼내놨다. 신 씨는 "코로나19로 인해 대기업도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취업은

준비 중인 학생들은 졸업 이후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지 불안해 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쟁보다 협력, 상생 위한 토대를"= "협력과 상생, 협동의 이야기가 담긴 정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참고육제주학부모회 김남훈 사무처장의 말이다. 아이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는 마음이다.

김 사무처장은 "고입 시험이 폐지되기 전부터 고입 제도 개편을 주장했던 것은 기존 체계에선 중학교 때부터 경쟁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이었다"며 "경쟁보다는 민주시민교육의 철학을 담은 정책을 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을 위한 인권조례 등도 제정돼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가는 토대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학교 밖 교육에도 관심을"= 고성만 한국학원총연합회 제주도지회장은 '학교 밖 교육'까지 꼼꼼히 챙길 수 있는 인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맞닥뜨린 학원업계의 위기를 토로하며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에 대한 바람도 내비쳤다.

고 회장은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휴원에 동참하는 학원은 강사 인건비, 건물 임대료 등 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원 업계에도 경영안정자금 대출 등 금융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1년 뒤 상황을 해야 하고 지원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교 밖 교육까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며 법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연론3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봉행된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통해 정부 차원의 추가 진상규명과 배·보상을 천명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文 대통령 "제주는 이제 외롭지 않다"

2018년 이후 2년 만에 4·3추념식 참석해
 정부 차원 추가 진상규명과 배·보상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2년 만에 4·3추념식에 참석해 "제주는 이제 외롭지 않다"고 선언한 뒤 정부 차원의 추가 진상규명과 배·보상을 약속했다.

올해 제72주년을 맞은 4·3희생자 추념식이 행정안전부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으로 3일 제주4·3평화공원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추념식

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폭 축소 봉행됐지만, 2018년 추념식에 이어 2년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며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

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통일 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멍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도 평화와 통일을 꿈꾸고, 화해하고, 통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제주의 슬픔에 동참해야 한다"며 "그날, 그 현실의 현장에서 무엇이 날조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고통을 씌우고, 또 무엇이 제주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제주는 이제 외롭지 않다"며 추가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故 양지홍 희생자의 딸 양춘자 씨와 함께 추념식에 참석한 김대호 군(양 씨의 손자)의 편지글 낭독이 이어졌다.

한편 올해 추념식은 대통령 추념사와 김 군의 편지 낭독, 가수 김진호의 추모공연 등으로 간소하게 치러졌다. 문 대통령은 추념식 이후 유탄불안관을 방문한데 이어 양주호 4·3평화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유탄발굴 상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후 4·3희생자와 군·경 희생자 신위를 함께 안치한 애월읍 하귀리 소재 영모원을 참배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기호 12번

진짜가 나타났다 12 열린민주당

국민공천 개혁후보 17명!

이순신장군은 12척의 배로 나라를 구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12공약으로 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② 국회의원 3선 제한법 제정 ③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민참여경선 의무화
- ④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분리 ⑤ 불법 해외은닉재산환수특별법 제정 ⑥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 ⑦ 언론 오보방지법 제정 ⑧ 어린이집·유치원 지원예산 가정에 직접 지급 ⑨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사학공공성 강화
- ⑩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등록금 면제 ⑪ 건강보험료 책정 시 소득기준으로 일원화 ⑫ 농촌재생뉴딜정책 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계약 인종 20호. 열린민주당, 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선거광고]